e-METAL WORLD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핫이슈

대창에이티 알루미늄 생산 중단 여파는?

低價 중국산에 밀려 적자 누적에 중단

[155호] 2018년 11월 05일 (월)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대창에이티(대표 문경석)가 10월 10일부로 알루미늄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국내 주요 알루미늄 판재 업체중 하나인 대창에이티의 생산 중단 배경과 향후 알루미늄 판재 시장을 조망해봤다. <편집자주>



■ 中 제품에 가격 경쟁력 밀려…장기간 적자 누적

코스닥 상장 1차 철가 제조업체 대창스틸은 종속회사 대창에이티가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알루미늄 생산시설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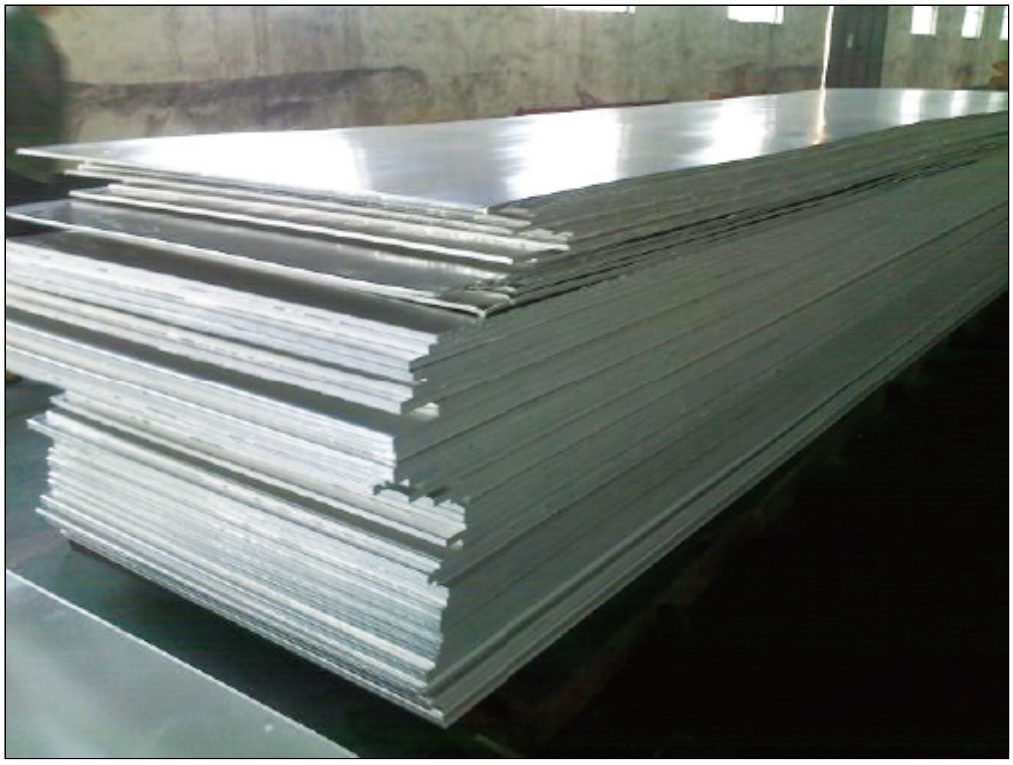
영업정지 금액은 462억원 규모이며 이는 지배회사인 대창스틸 최근 연결기준 매출총액의 14.53% 수준이다.

회사 측은 “생산품목의 외주생산 및 유통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으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생산정지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최소한의 영업인원 활동으로 수익성 확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창에이티의 주력사업인 알루미늄 판재 판매 실적은 올해부터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렸다. 대창에이티의 올해 1~9월 알루미늄 판재 판매 실적은 내수와 수출을 합해 총 1만1,956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기록한 1만8,530톤보다 35.4% 급감했다.

2018년 1~9월 내수는 1만1,753톤으로 2017년 1~9월(1만8,290톤)에 비해 35.7% 감소했고 수출 역시 올해 1~9월 203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 240톤보다 15.4% 줄었다. 특히 올해 1~5월까지 2월을 제외하고 판매량이 1,400~2,000톤을 유지했지만 6월부터 1,000톤 내외로 급격히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열연 후판 등 열간 제품 쪽이 중국재 수입량이 늘다보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중국이 국내보다 kg당 300원 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생산 설비와 부지는?

대창에이티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알루미늄 제조사다. 대창스틸의 알루미늄 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사됐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산 공장은 판, 코일 등 냉간 압연 제품을 주로 생산해왔다.

2011년에 포스코P&S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뉴알텍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뉴알텍 인수 이후 충남 서산 신공장 이전과 기존 3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에 15만톤 이상의 생산력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매입 이후부터는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포스코P&S가 4년 후인 2015년 4월 뉴알텍을 이전 주인이었던 대창스틸에 매각하면서 알루미늄 압연 사업도 정리됐다. 대창스틸은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59.5%로 높이며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동시에 뉴알텍이었던 사명을 현재의 대창에이티로 변경했다.

앞서 대창에이티는 지난해 중순경 인천 남공공단에 위치한 본사 부지 7,100평을 매물로 내놨다. 당초 부지가 팔리면 충남 서산에 마련해놓은 1만5,000평의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창에이티가 알루미늄 생산을 전면 중단하면서 서산 부지 역시 다시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월부로 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아산 둔포공장에 제품 재고가 일부 있어서 당분간 상품 판매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9월 대창에이티 알루미늄판 판매 실적 (단위: 톤, %)

구분	월별											1~9월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전년비	2017년	2018년	전년비
내수	1,988	1,186	1,380	1,976	1,489	952	981	1,001	800	-20.1	-59.4	18,290	11,753	-35.7
수출	12	0	34	49	0	0	108	0	0	-100	-100	240	203	-15.4
계	2,000	1,186	1,414	2,025	1,489	952	1,089	1,001	800	-20.1	-60.3	18,530	11,956	-35.4

*자료 : 철강금속신문

■ 향후 판재 시장 전망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이어간 알루미늄

판 시장은 하반기부터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값싼 중국재가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알루미늄 판재 수입량의 64.4%를 점유했던 중국 알루미늄 판 제품의 수입은 올해 1~9월 74.9%로 상승했다.

중국의 알루미나 수출이 금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시발점은 루살(Rusal)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따른 중국산 알루미나 수요 증가 때문이었다. 올해 8월까지 수출된 중국 알루미나는 37만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중국내 알루미늄 재고 증가로 원재료인 알루미나 수요가 감소한 것 역시 또다른 수출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생산 실적은 2010년 2,007만2,000톤으로 43.4%, 2012년 2,653만4,000톤으로 50.7%, 2015년 3,164만1,000톤을 생산하면서 세계 생산량의 52.8%로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왔다.

2018년 1~9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생산량 역시 3,028만1,000톤을 생산하면서 세계 생산량의 62.9%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주요 알루미늄 판재 업체인 대창에이티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큰 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와 조일알미늄으로 수요가 이동할 공산이 크고 중국재로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메탈월드(http://www.emetal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